

“이 판국에... 외유나 할 땐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호남 위기론’이 부상하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외에 나갔거나 나갈 예정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호남 민심 부글부글 끓는데 지역 국회의원들 외유성 출국 잇따라 ‘빈축’ 고흥군의회도 ‘해외 관광’ 추진에 주민 눈총

여기에 농림수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1월 중 해외 방문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국회의원들의 추가적인 해외 출국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 수정안 후폭풍에 따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회생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 예산 삭감에 따른 지역 현안을 챙기기 보다는 의원 외교 및 연구 등을 명분으로 한가하게 외유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이다.

13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 가운데 11명이 연초에 해외에 나갔거나 이달 내에 해외 출국 예정이 잡혀져 있다.

최인기 의원(나주·화순)과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장성)은 지난 11~12일 한일의원연맹 신년인사 회 참석차 일본을 다녀왔다.

김동철 의원(광산 갑)도 한·구주의 원협의회 총회 참석차, 오는 18일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퇴보로 호남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역 정치권이 여권에 치열하게 대응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국회 법사위원장인 유선호 의원(강진·장흥)은 법원조직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9일 출국, 1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11일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날이라는 점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8일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입시국회가 개최가 예정됐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 의원들은 외유 논란과 관련, “해외 방문은 정당한 사유와 목적에 의한 의원 외교활동이나 연구 등을 위한 것”이라며 “무조건 외유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국회 법사위 간사인 유윤근 의원(광양시)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사법제도 연구를 위해 인도를 방문했다. 그러나 인도가 사법제도의 선진국으로 보기 어려운 외유 성격이

서갑원 의원(순천시)은 지난 8~12일 국회 문방위원 일부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다녀온데 이어 오는 15~28일까지는 아동환경연맹회의 참석 및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네팔과 아프리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성곤 의원(여수 갑)은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로 각기 17~29일까지 미주 등을 방문하고 김영진 의원(여수 을)도 같은 목적으로 15~26일까지 미주 지역에 머무른다.

한편 고흥군의회 의원들도 오는 18일 일본으로 관광성 외유를 떠날 계획이어서 눈총을 받고 있다.

여기에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참석차 14~16일까지 필리핀으로 떠날 예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도 14~16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다. 김 의원은 뉴 민주당 선언 마무리 작업 등으로 당초 일정보다 3일 늦게 출국한다.

일부 지역 의원들은 외유 논란과 관련, “해외 방문은 정당한 사유와 목적에 의한 의원 외교활동이나 연구 등을 위한 것”이라며 “무조건 외유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12일(현지시각)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붕괴된 건물 더미에 깔린 남성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궁도 폭삭... 수천명 매몰·사망

■아이티 규모 7.0 강진 정부 건물·병원·호텔·성당·가옥·상점 등 초토화 200여년만에 최대 규모...여진 잇따라 피해 속출

중앙아메리카 아이티에서 12일 오후(현지시각) 200여년만에 최악의 강진이 발생, 대통령궁을 비롯해 정부기관 건물과 병원, 호텔, 가옥들이 붕괴되는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다.

정확한 인명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무너진 건물더미에 상당수의 사상자가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 수가 최대 수천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력한 여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USGS 관계자는 AP 통신에 1770년 이후 아이티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말했다.

◇1770년 이후 최악의 강진=7.0의 강진이 아이티를 강타한 것은 이날 오후 4시53분(현지시간).

아이티와 국경을 접한 도미니카 공화국과 쿠바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으며,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에서는 놀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사망자 수천명 달할수도”-약탈까지=전화 등 통신이 끊겨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가운데 수백~수천명이 사망했을 것이라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익명의 한 현지 의사는 “수백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강력한 여진이 잇따라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USGS는 이날 지진 발생후 불과 몇시간 동안 24차례에 이르

는 강력한 여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USGS 관계자는 AP 통신에 1770년 이후 아이티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말했다.

구호단체 ‘가톨릭 릴리프 서비스’ 관계자는 AFP 통신에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상점을 약탈하면서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문맹률 45%... 중남미 2번째 빈국

■아이티는 어떤 나라? 아이티 공화국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국가로, 서반구 내 2번째 빈국이다. 900여만명이 이

르 전체 인구 중 약 70%가 하루 2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고, 문맹률이 45%에 이른다. 아이티는 과거 프랑스령 식민지였으나 1804년 흑인 노예혁명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다.

정가 라운지

주승용 “혁신·기업도시에도 인센티브 부여해야”

○민중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승용 국회의원은(여수 을)은 13일 민주당 나주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원 10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원안 추진 또는 혁신·기업도시에도 세종시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난해 38개였던 사회적 기업 중 22개 기업이 탈락, 589명이 실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구의회 “세종시 원안 철회를”

○광주시 동구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여당 내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야당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의미하는 국책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철회를 요구했다.

무사 경력을 통해 경제와 사회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터득했다”면서 “이러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남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남구청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윤봉근 ‘송정지역 일일역장’ 체험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은 15일 광주 지하철 송정지역 일일역장으로 임명돼 지하철 서비스 체험을 한다. 윤 전 의장은 이날 일일역장으로 근무하며, 지하철 이용자들 중 노인과 장애인들의 승차 안내와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게 된다.



김성현 “광주시의원 출마” 선언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13일 광주시의회 서구(을) 제4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표를 던졌다. 김 전 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재직 경험과 사회단체에서 배우고 익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사회적 기업 육성 노력”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3일 오전 광주시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엠마우스 산업’을 방문해 “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사업에 예산을 대거 쏟아붓는 바람에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지



김만곤 남구의원 “남구청장 출마”

○김만곤 민주당 강연대 국회의원 특별보좌역은 13일 남구청장 출마의 뜻을 밝혔다. 남구의회 3선 의원과 현재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 보좌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년 간의 지방의원 생활과 25년의 세



Advertisement for 'Ionia' (이오니아) featuring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이오니아 1+1 축제 페스티벌!' and '합합리 이온수기 워싱동상 개선프로그램 허가기념 노비파바대 증정행사!!'. It includes images of Ionia water purifier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Ionia' (이오니아) featuring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이오니아 1+1 축제 페스티벌!' and '합합리 이온수기 워싱동상 개선프로그램 허가기념 노비파바대 증정행사!!'. It includes images of Ionia water purifiers and promotional text.